



(다) 아마 다른 부인들은 산해진미, ㉠희한하고 값진 재료를 구하기에 애쓰고 주방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파·마늘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갖은 양념, 갖은 ㉡고명을 쓰기에 애쓰고 소금·고춧가루는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료는 가까운 데 있고 허름한 데 있었다. ㉢중국 음식의 모방이나 정통 궁중 음식을 본뜨거나 하여 음식을 만들기에 애썼으나 하나도 새로운 것은 없었을 것이다. ①더욱이 궁중에 올릴 음식으로 그렇게 막되게 ②썬, 규범에 없는 음식을 만들려 들지는 아니했을 것이다. 썩둑썩둑 무를 썰면 곱게 채를 치거나 나박 김치처럼 납작납작 예쁘게 썰거나 ③장아찌처럼 갈썩갈썩 썰지, 그렇게 ④꺼둑꺼둑 막 썰 수는 없다. 고춧가루도 적당히 치는 것이지, 그렇게 ⑤싯빨절게 막 버무리는 것을 보면 질색을 했을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깎두기는 무법이요, 창의적인 대담한 ㉣과격이다.

(라) 김 군은 영리한 사람이다. “선생님, 지금 깎두기를 통해 ‘수필(隨筆)’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수필은 ( )”

### 3. ㉠~㉣의 사전적 뜻풀이가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일품요리 : 한 끼 음식을 그릇에 담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든 요리
- ② ㉡열근 : 매워서 입 안이 조금 얼얼함
- ③ ㉢희한 : 매우 드물거나 신기함
- ④ ㉣고명 : 음식에 새콤한 맛을 더하기 위하여 넣는 조미료
- ⑤ ㉣과격 : 일정한 격식을 깨뜨림

### 4. 문단 (다)의 밑줄 친 ㉢를 가장 자연스럽게 고친 것은?

- ① 중국 음식을 모방하고 정통 궁중 음식을 본뜨거나 하여
- ② 중국 음식을 모방하거나 정통 궁중 음식을 본뜨거나 하여
- ③ 중국 음식의 모방이나 정통 궁중 음식을 본떠
- ④ 중국 음식의 모방과 정통 궁중 음식을 본뜨거나 하여
- ⑤ 중국 음식의 모방은 물론, 정통 궁중 음식을 본뜨거나 하여

### 5. 문단 (다)의 ①~⑤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더욱이
- ② 썬
- ③ 장아찌
- ④ 꺼둑꺼둑
- ⑤ 싯빨절게

### 6. 문단 (라)의 괄호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제목에 구매되지 않고 써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② 신기하고 어려운 기법을 사용하여 써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③ 우리 주변의 평범한 데에서 소재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④ 소박하고 진실하며 품위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⑤ 그 내용의 품격을 위하여 언어 규범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④ 1965년도와 1975년도의 대학교 수와 대학생 수를 비교해 볼 때, 1970년대 중반 들어서 대학의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⑤ 2003년도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 수를 살펴볼 때,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절대 경쟁률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11. 다음 중 밑줄 친 동사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 ①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 ②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③ 개그맨이 사람들을 웃긴다.
- ④ 철수가 물을 끓인다.
- ⑤ 영화가 그 소식을 알렸다.

12.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에 급증하는 생활 용수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45호)
- ② 입찰 등록을 마친 자는 매각 재산의 제반 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결(缺)한 결과로 발생하는 책임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아산시공고 제1999-68호)
- 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 물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1호)
- ④ 각 취급 기관의 장은 기술 개발 중인 용자 사업자가 기술의 한계 등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확보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호)
- ⑤ 입찰 대상 용역 업체 선정 및 절차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1999-12호)

13. 다음은 '올바른 문화 상대주의'라는 주제로 글의 개요를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문화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보편적 기준의 유무
2. 그러한 기준의 유무에 따른 두 가지 이론
  - 2-1. 서양문화 우월주의에 입각한 절대주의
  - 2-2. 20세기 문화인류학의 문화 상대주의
    - 2-2-1. 각 문화 나름의 합리성과 우월성 인정
    - 2-2-2. 일정한 측정 기준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
3. 문화 상대주의의 맹점
  - 3-1. (예시1) 인도의 순장 풍습 용인
  - 3-2. (예시2) 보편 인권 선언의 부정
4. 보완된 문화 상대주의(결론)

- ① 그리하여 문화 상대주의자들은 다양한 인류 문화는 나름의 합리성과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으로 그 문화들을 평가해 우열을 가리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 ② 결론적으로 서양인들의 편협한 절대주의에 대항하여 생겨난 문화 상대주의 역시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과신(過信)이라는 제2의 절대주의가 되어 인도의 순장 유습을 묵인하고 ‘보편 인권 선언’을 거부하는 등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서양문화 우월주의를 극복하고 각 지역의 문화 유산과 전통적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의 근본 취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 ③ 그리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 사회는 문화 발달 정도의 절대적인 척도를 규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은연중에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전제 역시 진실로 각양각색의 인류 문화 형태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회의(懷疑)에 의하여 견제되어 왔다. 결국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진 것이다.
- ④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19세기까지 서양에서는 과학이 자연에 종속된 인류를 해방할 수 있다고 믿고, 과학의 발달 정도를 문화 선진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그들이 정치·경제·문화에 걸쳐 세계 질서를 서양 중심으로 재편해 온 과정에서 나온 편견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편견의 벽을 넘어 20세기 문화인류학의 등장과 더불어 행해진 세계 여러 문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그와 정반대의 관점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⑤ 그 문화 구성원들의 행복과 안락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에 선진성을 부여하는 것이 문화 평가의 궁극적인 의의이다. 그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각 문화 형태에 진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성숙한 평가 분위기 속에서 도출된 ‘인류 보편의 도덕률’ 같은 절대적 기준을 탄력성 있게 수용하는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한층 성숙한 관점을 통해서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진실로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문화적 행태들을 편견 없이 단죄할 수 있을 것이다.

#### 14. 다음 중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수박이던 참외던 아무거나 사 가자.
- ② 그 일의 책임은 정부(政府)에게 있다.
- ③ 정부(政府)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런지 궁금하다.
- ④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
- ⑤ 내가 택시를 탈려는 순간, 누군가 나를 불렀어.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5-16)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가장 긴 역사를 지닌 도시다. 1514년에 건설이 시작되었고, 1607년에 수도가 되었다. 이는 뉴욕이나 워싱턴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다. 현재는 쿠바 국민의 20%에 가까운 220만 명이 아바나에 거주하고 있다. 카리브해 최대의 근대 도시이자 정치, 상공업, 문화의 중심인 이곳에는 여러 정부 기관과 화력 발전소, 석유 정제소, 화학 공장, 제지 공장, 방적

공장, 담배 공장 등의 공업 지대가 들어서 있다. 뿐만 아니라 아바나에는 1992년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받은 바 있는 식민지 시대의 오랜 주택가도 남아 있다.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아바나에 다시 ‘도시 농업’이라는 새로운 경관이 추가되고 있다. 더불어 새롭게 탄생한 도시 농업을 중심으로 도시 한복판에 700헥타르나 되는 새로운 녹지 공원을 만드는 ‘수도 공원 프로젝트’와, 1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시 전체를 푸르게 만들려는 ‘나의 녹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이제 아바나에서는 석유가 부족해 움직이지 않았던 차 대신 자전거가 거리를 누비고, 수입할 수 없게 된 의약품을 대신해서 도시의 채소 농장에서 허브가 자라고 있으며, 태양 전지와 바이오 가스 같은 자연 에너지가 시민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도시 농업과 유기 농업은 학교 교육에서도 다뤄진다. 초등학교에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농업을 배우는 통합 학습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001년 가을부터 새로 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초등 학교 급식에 쓰일 유기농 채소가 도시 농가에서 공급되고 있다. 수입 식료품에 의존했던 육식 중심의 음식 문화를 채식 중심으로 바꾸는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른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에 따른 국제 분업 체제에 지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생태학적으로 보면 사실 ‘폐쇄계’나 다름없다. 석유와 같은 지하 자원도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바나 시민이 경험한 위기는 세계의 모든 도시가 머지않아 직면하게 될 사태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쿠바는 특수한 정치 상황에 ㉠지구의 미래를 좀더 일찍 경험하게 된 것이다.

#### 15. 이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사실은?

- ① 쿠바는 식민지 시기를 겪었으나 지금은 독립했다.
- ② 쿠바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농업 교육을 받는다.
- ③ ‘도시 농업’은 대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형태를 말한다.
- ④ 아바나는 도시 농업의 발생과 진행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 ⑤ 쿠바는 도시 농업을 통해 도시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 16. 밑줄 친 ㉠의 의미를 가장 바르게 해석한 것은?

- ① 생태계 파괴에 따른 전지구적 위기
- ② 자원이 고갈되고 산업 시스템이 멈춘 상황
- ③ 과학 기술을 거부하는 자연 회귀론자들의 득세
- ④ 과학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물질 문명의 퇴보
- 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공멸(共滅)

#### 17. “철수가 집에 간다”라는 문장은 총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 |      |      |
|------|------|
| ① 3개 | ② 4개 |
| ③ 5개 | ④ 6개 |
| ⑤ 7개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20)

18.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내는 무식하지만 순박한 시골 아녀자다.
- ② 남편은 노름에 빠져 있기는 해도 사람이 원래 악하지는 않다.
- ③ 부부는 다음날 생길 ‘돈 이 원’에 마음이 부풀어 있다.
- ④ 부부는 빚에 쫓돌리고 있으며, 남편은 노름판에서 돈을 따 빚을 갚을 요량이다.
- ⑤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19. 이 작품을 연극으로 꾸밀 경우 [가] ~ [마]는 남편의 대사가 된다. 각각의 지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 (한숨을 쉬며) “곧 가게 되겠지, 빚만 좀 없어도 가뜩하면만.”
- ② [나] (호기롭게) “염려 없어. 이 달 안으로 꼭 가게 될 거니까.”
- ③ [다] (잘난 체하며) “이번이 서울 처음이지?”
- ④ [라] (제 흥에 겨워서) “그래서 날마다 기름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버선도 신고 해서 쥘 마음에 썩 들어야…….”
- ⑤ [마]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이런 망할 거, 남 말하는데 자빠져 잔담.”

20. ㉠ ~ ㉥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걸잠 : 옷을 입은 채 아무것도 덮지 아니하고 아무 데나 쓰러져 자는 잠
- ② ㉡복대기다 :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일이나 사람을 서둘러 죄어치거나 몹시 몰아치다
- ③ ㉢감잡히다 : 남과 시비(是非)를 다툰 때, 약점을 잡히다
- ④ ㉣안잠 : 아이를 낳으면 돈을 받기로 하고 사는 첩살이
- ⑤ ㉤바투하다 : 두 대상이나 물체 사이가 조금 가깝다

21. 속담은 의미의 구성상 ‘상대성’과 ‘접충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 중 접충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 ① 그림의 떡
- ② 무자식이 상팔자
- ③ 꿩 먹고 알 먹고
- ④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2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복을 다린다.
- ② 비가 와서 우산을 받치고 나갔다.
- ③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 ④ 걱정 마, 내일까지는 꼭 할게.
- ⑤ 내가 하느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먹물같이 짙은 밤이 내리었다. 비는 더욱 소리를 치며 앙상한 그들의 방벽을 앞뒤로 올린다. 천장에서 비는 새지 않으나 집 지은 지가 오래 되어 고래가 물러앉다시피 된 방이라 도배를 못 한 방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어 귀축축하다. 거기다 거적 두 닢만 덩그렇게 깔아 놓은 것이 그들의 침소였다. 석유풀은 없어 캄캄한 바로 지옥이다. 벼룩은 사방에서 마냥 스멀거린다.

그러나 ㉠등걸잡에 익달한 그들은 천연스럽게 나란히 누워 즐기치게 퍼붓는 밤비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뜻한 정을 모르고 나날이 매질로 불평과 원한 중에서 ㉡복대기던 그들도 이 밤에는 불시로 화목하였다. 단지 남의 품에 든 돈 이 원을 꿈꾸어 보고도…….

“서울 언제 갈라유.”

남편의 왼팔을 베고 누웠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응석 비슷이 물어 보았다. 그는 남편에게 서울의 화려한 거리며 후한 인심에 대하여 여러 번 들은 바 있어 일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몽상은 하여 보았으나 실지 구경은 못 하였다. 얼른 이 고생을 벗어나 살기 좋은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가]“곧 가게 되겠지, 빗만 좀 없어도 가뜩하면만.”

“빛은 낭중 깔더라도 얼핀 갑세다유.”

[나]“염려 없어. 이 달 안으로 꼭 가게 될 거니까.”

남편은 썩 쾌히 승낙하였다. 판은 그는 동리에서 일컬어 주는 질꾼으로 투전장의 가보쫓은 시루에서 콩나물 뽑듯 하는 능수였다. 내일 밤 이 원을 가지고 벼락같이 노름판에 달려가서 있는 돈이란 깡그리 모집어 올 생각을 하니 그는 은근히 기뻐다. 그리고 교묘한 자기의 손재간을 홀로 뽐내었다.

[다]“이번이 서울 처음이지?”

하며 그는 서울 바람 좀 한번 쐐었다고 큰 체를 하며 팔로 아내의 머리를 흔들어 물어 보았다. 성미가 워낙 겁없는지라 지금부터 서울 갈 준비를 착착 하고 싶었다. 그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둠구석에서 뉘 자라 먹은 아내를 데리고 가면 서울 사람에게 놀림도 받을 게고 거리끼는 일이 많을 듯 싶었다. 그래서 서울 가면 꼭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을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치 않을 수도 없었다.

첫째, 사투리에 대한 주의부터 시작되었다. 농민이 서울 사람에게, ‘꼬라리’라는 별명으로 ㉢감잡히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투리에 있을지니 사투리는 쓰지 말며, ‘합세’를 ‘하십니까’로, ‘하계유’를 ‘하오’로 고치되 말끝을 들지 말지라. 또 거리에서 어릿어릿하는 것은 내가 시골뜨기요 하는 얼뜬 것이니 갈 길은 재계 가고 불 눈을 또릿또릿이 불지라— 하는 것들이었다. 아내는 그 끔찍한 설교를 귀담아들으며 모기 소리로 ‘네, 네’를 하였다. 남편은 뒤 시간 가량을 썰 틈 없이 꼼꼼하게 주의를 다져 놓고는 서울의 풍습이며 생활 방침 등을 자기의 의견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여 오다가 말끝이 어느덧 화장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골 여자가 서울에 가서 ㉣안잠을 잘 자주면 몇해 후에는 집까지 얻어 갖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소문을 일찍 들은 바 있어 하는 소리였다.

[라]“그래서 날마다 기름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버선도 신고 해서 켜 마음에 썩 들어야…….”

한참 신바람이 올라 주워섬기다가 옆에서 쉼쉼 소리 들리므로 고개를 돌려 보니 아내는 이미 굶어져 잠이 깊었다.

[마]“이런 망할 거, 남 말하는데 자빠져 잔담.”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며 바른팔을 들어 이마 위로 흐트러진 아내의 머리칼을 뒤로 쓰다듬어 넘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자기의 아내! 이 아내가 만약 없었던들 자기는 홀로 어떻게 살 수 있었으려는가! 명색이 남편이며 이날까지 옷 한 벌 변변히 못 해 입히고 고생만 짓시킨 그 죄가 너무나 큰 듯 가슴이 빠근하였다. 그는 왁살스러운 팔로다 아내의 허리를 꼭 껴안아 가지고 앞으로 ㉤바투이 끌어당겼다.

- 김유정, <소낙비> -

23. 다음 중 지명(地名)이 반영된 말이 아닌 것은?

- ① 벽창호
- ② 안성맞춤
- ③ 명태
- ④ 갈매기살
- ⑤ 안항라

24.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삼갑시다.
- ② 선영 씨, 고마워요.
- ③ 머릿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 ④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 ⑤ 그것은 예부터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관행이다.

25.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된 것은?

- ① 나 만큼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봐.
- ② 그가 떠난지 한 시간 정도 됐다.
- ③ 이 옷이 네 몸에 맞을거야.
- ④ 더 공부 하고 싶어서 도서관으로 갔어.
- ⑤ 먹을 만큼 덜어서 먹어라.